Life p/18
실내 겨울운동 부상 조심을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제3116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1
'님아, 그 강을…' 77만 돌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과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땅콩 리턴' 사태 확산… 한진號 '휘청'

"폭행·욕설 했다" 목격자 증언… 조현아 거짓말로 슈퍼 갑질 공분 일으켜 호텔신축도 무산위기

'땅콩 리턴'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벌가 최초로 부녀 사과까지 했지만, 사태가 가라앉기는커녕 진실공방 양상까지 불러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항공법 위반, 위증 등 법적 논란에 이어 특급호텔 건립 등 신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한진그룹으로서는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사정 칼날 앞에 선 대한항공

지난 12일 오후 3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출두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당시 사무장이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다", "처음 듣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 방송 매체는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사무장 인터뷰를 통해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을 제공했던 여 승무원을 질책하고 있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는데, 조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케이스로 찔러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인간적인 모욕감과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회사 측에서 검찰이나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거짓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해 '폭언·폭행이 없었다'는 대한항공 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한 탑승객의 증언까지 언론에 공개됐다.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바로 앞자리 일등석에 앉았던 박모(32·여)씨는 1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고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의심 받으면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사무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승객 박씨 등 관련자를 불러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이번 사건의 유출자를 찾으려고 직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까지 검열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의 경우도 모든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지 타격은 물론이고 사정 당국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사업도 '올스톱'되나

특히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이던 종로구 송현동 특급호텔 건립도 이번 사태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를 2900억원에 사들여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현행법상 학교근처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있다.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주변에 있어 호텔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관광호텔도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 주변에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 통과를 추진해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의 도를 넘은 이번 '슈퍼 갑질'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며 호텔신축의 명분마저 날려버렸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영업사원에게 '가상 판매' 강요

크라운제과도 갑질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크라운제과가 이번에는 영업사원에게 변칙 판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 자존심에 먹칠을 당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까지 가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겐 재고가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는 '가상판매'를 하도록 했다. 궁지에 몰린 사원들은 허위 판매 대금을 막기위해 덤핑 판매하고 부족 금액은 개인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일기자 prms@

‘김영란법’ 해 넘길 듯

‘선별 입법’ 주장도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시작되는 12월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심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지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위헌 논란 등에 발목이 잡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더딘 논의과정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세 항목 중 당초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 ‘금품수수 금지’ 부분을 따로 떼어 먼저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금품수수 금지 영역은 쟁점이 거의 해소돼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특히 금품수수 관련 처벌 조항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유주영기자 boa@

이재만 靑 비서관을 향한 언론의 관심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4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 ‘청 문건’ 수사 고비 맞나

핵심 유포 혐의 최 경위 자살에 비밀누설 적용 쉽지않아
박지만 이번주 소환… “십상시 비밀회동 없었다” 결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은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박 회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물고있다.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고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끝내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지만 실체 규명을 앞두고 고비를 맞았다.

문건 유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모(45) 경위가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문건의 유통 경로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유출은 대부분 최 경위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문제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은 유출경로가 아직 불분명하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통영함 비리’ 해군 대령 등 2명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14일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조직인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현직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유주영기자

서울시향 조사 종료…박 대표 대상서 제외

박현정 대표의 인권침해 의혹이 폭로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시향에 대한 감사원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서울시향을 포함해 서울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의 현장조사가 지난 12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시와 소속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정기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서울시향에서 제출받은 회계장부를 근거로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방만 등 부정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류를 샅샅이 조사해 문제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박 대표를 상대로 한 대면조사는 생략됐고 인권침해 의혹도 다뤄지지 않았다.

박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명훈 예술감독 역시 직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주영기자

공무집행 정복 경찰관 폭행 전원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사범 345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39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이는 작년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동부지검이 작년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한 경우가 전체의 75.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검찰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피해가 가볍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유주영기자

여야 오늘 현안 질문… 비선의혹 대격돌

현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허위 문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이 문건 유출에 수사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해 반격에 나설 태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농단 의혹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의혹 제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최모 경위의 예기치 않은 자살을 둘러싼 동기와 배경, 수사 과정의 강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14일 국회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중 죽음에 이른 최경위에게 애도를 표하며 “최경위가 남긴 유서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뒤늦게 현안질문 의제로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김태흠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회수율 14%, 총 회수 전망 115%, 실패율 6.5%)가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과(회수율 15%, 총 회수 전망 103%, 실패율 19.5%)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기선잡기를 시도했다.

새정치연합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파헤친 ‘주포’들을 전면에 세웠다.

정윤회씨 딸의 승마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던 안민석 의원과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 최민희 의원이 비선실세 의혹을 부각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 씨의 암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현안질문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의 유명 헬스트레이너 고용과 고가 수입 헬스장비 구매 의혹을 제기한 최 의원은 이재만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측근의 전횡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전해졌다.

/유주영기자 boa@

신기한 토끼와의 만남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이상한 마법학교2'체험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마술들을 체험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냐"

신은미 경찰 출석… "북 3대 세습 긍정적 평가 발언 왜곡"

'종북 콘서트'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사진)씨가 논란이 된 종북 발언이 허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상처를 입은 동포분들 마음을 치유하고픈 마음에서 수사에 기꺼이 성심껏 임하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최근 '토크 콘서트'에서 논란이 된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왜곡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종북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다녀온 후에 토크 콘서트에서어디든 장소 가리지 않고 했었다. 다큐도 찍고 올 4월에도 20개 도시 순회공연하고 똑같은 내용 강연했다"면서 "대학에서도 똑같은 강연을 했고 책에 있는 내용인데 왜 이번에만 종북 콘서트인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11일과 12일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날 함께 출석한 그의 변호인 역시 "신씨가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은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검증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씨의 책을 작년에 우수도서로 선정했고, 작년 9월에는 통일부가 만든 다큐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면서 그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환 불응'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달 10일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며 "지난 10일에는 '테러'가 일어나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성범죄 교수 자진 면직 안돼"

교육부, 학칙 개정 권고

교육부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주영기자

건보공단 서울콜센터, 서비스 분야 KS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 서울 고객센터는 산업표준화 주관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실시하는 2014년 콜센터 서비스 KS인증 정기심사에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서울 고객센터는 2006년 4월 11일 상담업무를 시작하고 2008년 11월 공공기관 최초로 콜센터 서비스 KS인증을 획득한 이후, 고객 상담 서비스의 표준화 및 체계화 등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7년 연속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했다.

건강보험 서울 고객센터의 이번 KS인증은 지난 달 14일 전문심사위원이 고객센터 현장을 방문, 콜센터 자동응답장치(ARS)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 부문' 심사 후, KS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건강보험 서울 고객센터는 12월 현재 450여명의 상담사가 1100여종의 상담업무에 대해 연간 약 850만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유주영기자

"여성성 지향 男 입대 피하려 호르몬 투약 무죄"

정신적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자가 입대를 피하려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김씨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주영기자

세계서 가장 예쁜 9세 모델

metro Russia

'살아있는 인형' 눈길

Кристина не
она самая кр

러시아의 꼬마 모델 크리스티나 피메노바(9)가 '세계에서 가장 예쁜 소녀 모델'로 뽑혔다.

크리스티나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패션화보 사진 조회수 50만 건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예쁜 소녀 모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얀 피부에 금발머리, 크고 파란 눈 때문에 크리스티나는 '살아있는 인형'으로 불린다. 예쁜 얼굴은 물론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포즈와 몽환적인 표정도 인상적이다. 축구 선수 출신 아빠와 패션 모델 출신 엄마의 재능과 끼를 물려받은 덕분이다.

딸의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는 엄마 그리케리야 피메노바는 아이에게 인기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 너무 어려 자신을 스타로 여길 경우 자칫 오만하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아이가 좋아하는 일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크리스티나의 꿈 중 하나는 체조 선수가 되는 것이다. 모델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체조 연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루에 3~4 시간 연습한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레메쉐브스키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나스카 라인 침범했다"

metro Peru

그린피스 배너 논란

Greenpeace ofrece
disculpas sin res

페루 정부가 문화유산을 훼손한 혐의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를 고소할 방침이다.

최근 그린피스 회원들은 기후변화 캠페인을 펼치는 과정에서 벌새 모양의 나스카 문양 옆에 배너를 설치했다. 노란색 천으로 '변화의 시간:재생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문구를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스카 유적지가 훼손됐다고 페루 환경부는 주장했다.

그러나 그린피스 측은 나스카 문양을 건드리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퍼포먼스를 위해 수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쳤고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감독을 받았다는 것.

페루 국민은 유적지가 훼손됐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현지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수도 리마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여개의 동물과 곤충, 외계인 형상 등이 사막에 그려진 나스카 라인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정리=조선미기자

미국인 또 불법 입북

평양서 기자회견… "이라크전 벌인 미국은 마피아" 비난

"이라크전을 벌인 미국은 마피아다."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이 14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를 이 같이 비난했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29)는 "한국의 한강을 건너 입북을 시도했다가 중국 단둥의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이 이뤄졌다면서 이라크전을 벌인 미국 정부는 마피아나 다름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거제도는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티네스는 또한 성명을 통해 "(불법 입국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 것과 북한 당국의 환대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베네수엘라 망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NN은 마르티네스가 북한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인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가 14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마르티네스는 지난달 초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2명을 데리고 나온 지 이틀 만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퍼 국장은 지난달 8일 북한을 방문해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와 함께 귀국했다.

마르티네스의 소식을 접한 어머니 패트리샤는 "아들이 조울증을 앓고 있다"며 "이전에도 북한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미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이후 캘리포니아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나온 아들이 집으로 오지 않고 인터넷 대출을 받아 중국행 비행기표를 샀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 매체들은 마르티네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일본 총선 실시…'우경화' 아베정권 장기집권 유력 14일 일본 도쿄의 투표소에서 한 소년이 엄마와 함께 투표하고 있다. 이번 제47회 중의원 선거(총선)에서는 소선거구 중의원 295명, 전국 11개 광역선거구의 비례 대표 180명 등 모두 475명의 중의원을 새로 뽑는다. NHK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과 공명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AFP 연합뉴스

MS, 미 검색 2위 자리 빼앗기나

페이스북과 제휴 7년 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검색이 사라졌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IT 전문외신들은 페이스북과 MS의 제휴가 7년 만에 끝났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검색 결과에서 MS 검색엔진 '빙'의 웹 검색 결과를 더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휴 관계 종료로 MS 빙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19.4%를 차지해 2위였던 빙이 3위인 야후(10%)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MS는 2007년 페이스북에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6% 지분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MS는 미국 외 시장에서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달 권리를 획득했다. 이 계약은 2010년에 만료됐으나 양사는 빙 검색 사용 빈도를 높이는 등 내용을 담은 제휴관계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제휴 중단으로 양사는 결별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국명기자 kmlee@

中 신용불량자 70만명 항공·철도 이용 제한해

앞으로 중국에서 신용불량자는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허위 소송이나 재산 은닉 등의 수단을 동원, 당국의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한 70만명에 대해 앞으로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고인민법원 류구이샹 집행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후 전체의 약 20%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았다"면서 "다양한 수단으로 이들을 압박해 신용사회를 만들고 사법 권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여객기 및 열차 침대칸 이용 등 고소비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새 규정은 여기에 추가로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하고 여객선도 일정 등급 이하 좌석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최고 안과 전문병원 자부심 지켜야죠”

■ 김용란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장

소통 앞장… 10년째 의사들이 쓴 블로그 환자들에 큰 도움

1962년 서울 영등포에 문을 연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안과 전문병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끊임없이 성장을 이어온 병원이다. 그리고 올해 김안과병원은 김희수 병원 창립자이자 건양대 총장의 딸인 김용란 병원장을 새로 맞이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녀의 1년과 병원의 미래 얘기를 들어봤다.

“요즘에는 정말 말 그대로 병원 생각뿐이죠. 모든 생각의 99%가 병원과 관련된 일들 같아요.”

인터뷰를 위해 자리를 잡고 인사를 건넨 후 취임 1년에 대해 묻자 김 원장은 웃으면서 말했다. 매일 5시에 일어나 명상과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 원장은 이 시간부터 병원을 생각한단다. 병원 경영뿐만 아니라 병원장으로 올바른 병원상을 제시하고 환자를 위한 답을 찾는 과정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병원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야 하고 병원장으로 직원들과도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하죠. 물론 환자의 얘기에도 귀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의 말처럼 소통이 쉽지는 않았다. 특히 3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한다. 이에 그녀는 직원 생일이 되면 직접 쓴 손편지를 들고 직원을 찾아가 생일을 축하하고 그동안 못한 얘기를 듣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적어도 한 번은 만났고 얘기를 나눠본 셈이다.

“소통과 함께 병원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병원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에는 10년째 병원 선생님들이 직접 쓴 이야기들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올 정도로 가치가 있고 환자나 다른 병원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말들이 가득하죠. 이런 우리만의 가치를 계속 쌓아가는 일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만큼 전통과 실력이 있지만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병원이 가진 책임이라는 소리다. 실제로 김안과병원은 현재 국내 안과 전문병원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노인센터를 더욱 활성화할 구상도 하고 있다.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베풂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무료 백내장 수술이 올해 1000례를 달성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는 그녀의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다. 작은 것을 베풀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아올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김 원장의 가슴 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의사다운 의사가 돼야 한다는 마지막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다.

“사실 저와 김안과병원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의사와 김안과병원이 내 삶의 일부면서 내 운명과도 같다는 말이죠. 의사다운 의사가 되려는 실천을 이어가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죠.”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물티슈 원단, 물로 압착한다는 것 아세요?”

르포

호수의 나라 수오미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물티슈용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은 드물어요.”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백산린텍스의 오창공장을 찾았다. 이곳은 물티슈 전문 업체 호수의 나라 수오미의 협력사이자 제품에 사용되는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수오미 측은 유한킴벌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는 수오미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업체는 중국에서 생산한 원단을 들여온다는 것이다.

섬유를 섞고 이것을 얽기 설기 엮어 납작하게 눌러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면 원단이 만들어진다. 단순한 공정이었지만 압착에 필요한 물을 뿌려주는 노즐, 자동으로 비율을 맞추는 저울 등 설비는 까다로웠다.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이 귀를 울렸다. 수오미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이들은 ‘3부 1라인’이라고 불렀다. 해당 라인에서는 전 제품의 70~80%가 생산되고 있으며 면적은 2000평 정도다. 월 최대 생산량은 600t 정도인데 1팩에 150g인 ‘순둥이 베이직’을 기준으로 500만 팩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핀셋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 김수정기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아직 가공 직전의 레이온과 면 등 부직포를 만드는 섬유들이 쌓여있었고 이것을 조금씩 찢어 직원 두 명이 기계 안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혼타면 공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섬유를 찢어 넣으면 말트로믹스라는 설비가 자동으로 섬유를 혼합한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마다 많은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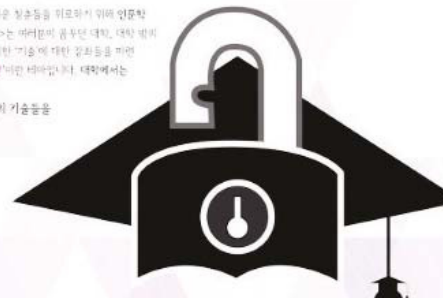
최창식 공장장은 “섬유를 찢어 넣는 것 외에는 대체로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에 1~2명씩 배치해 검수를 하는 것 외에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혼방 과정이 끝나면 납작하게 원단을 누르기 바로 직전 단계인 카딩 공정을 거친다. 일정 두께의 섬유층을 솜처럼 만드는 카딩 과정을 거쳐 카드웹을 만드는 공정이다. 이 카드웹을 납작하게 눌러주는 과정에는 물이 동원됐다. 작은 구멍에서 뿌려지는 물로 압착을 해주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바싹 건조된 원단은 공장 직원의 꼼꼼한 검수를 거쳐야만 포장 단계로 넘어간다. 공정마다 금속검출기를 달고 이물질이 원단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울리는데 몇 미터 지점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는지 종이에 표시해 주면 이것을 보고 직원이 핀셋으로 제거했다.

롤 형태로 말아 포장된 원단은 약 300평 규모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1~2일 내로 출고된다고 공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장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수오미 측은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인문학협동조합 ‘열려라 대학’ 개설

인문학 협동조합(이사장 한만수 동국대 교수)은 2015년 1월 대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열려라 대학’을 개설한다.

이 강좌는 대학시험 이후 학업의 공백으로 무의미한 겨울을 보내는 예비 대학생과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여러 상황들을 인문학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대학생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문학 협동조합의 프로그램이다.

강좌는 2015년 1월 5일부터 21일까지 총 6회로 구성된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총 6회 이뤄지며 수강신청은 이달 28일까지 opuniversity@naver.com로 하면 된다.

강좌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또 이 강좌와 연계된 사회적 환원 차원의 강좌 프로그램이 기획돼 본 강좌 종료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강의 일정은 1강 관계의 기술 (강사 윤정안), 2강 거주의 기술 (강사 홍덕구), 3강 방황의 기술 (강사 장윤미), 4강 소통의 기술 (강사 박은미), 5강 여행의 기술 (강사 이후경), 6강 낭만의 기술 (강사 고자연)으로 이뤄진다. /유주영기자 boa@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1921.71 (+5.12)

코스닥 533.67 (−3.54)

금리(국고채 3년) 2.11 (−0.02)

환율(원·달러) 1102.00 (+1.30)

방통위, 불·편법 영업 단속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통신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등으로 묶인 결합상품 불·편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뉴시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도미노

팬택 이어 삼성·LG전자도 합류… 30만원대로

삼성전자 갤럭시 알파(왼쪽)와 LG전자 아카.

삼성·LG전자 등 시중에 출시된 스마트폰 가격이 대폭 인하되고 있다.

올 하반기 팬택의 베가아이언2와 베가 팝업 노트의 출고가 인하 열풍이 식을줄 모르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도 출고가 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주로 중저가 단말기에 한해 기존 출고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통3사로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알파, LG전자 아카의 출고가는 30%가량 내려갔다.

갤럭시 알파는 기존 출고가 74만8000원에서 22만2000원 내린 52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아카 단말기는 52만8000원에서 현재 39만9300원에 출고가가 형성됐다.

또 GX2는 출고가를 24% 인하한 45만1000원, 갤럭시줌2는 57% 가격을 내린 29만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팬택 제품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가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자회사 알뜰폰 업체 미디어로그의 경우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단말기 출고가 파격 인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에서 'X3'를 구매할 경우 5만원 이상 요금제 기준 지원금 29만8000원과 판매점 추가 15% 금액을 포함해 단돈 3만원에 살 수 있다. 또 샤오미도 알뜰폰 업체와 손잡고 저가형 스마트폰으로 국내 진출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또 최근 국내외 제조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니는 물론 레노버 등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팬택의 영향과 중국 업체의 진출로 인해 스마트폰 출고가는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삼성과 LG 등 국내 제조사들은 프리미엄과 저가형 제품으로 시장 경쟁을 펼칠 것이다. 당분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중소기업 내년 경기 올해와 같거나 악화

국내 중소기업의 79%는 새해 경기가 올해와 같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투자심리 위축과 엔저현상 지속, 중국 경기둔화 등이 원인으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새해 중소기업 경기 및 경제환경 전망조사'에 따르면 78.9%가 내년 경기가 올해와 같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사결과, 올해와 같을 것으로 보는 업체(45.8%)가 가장 많았고, 이어 다소 악화(28.5%), 다소 호전(21.0%), 매우 악화(4.6%), 매우 호전(0.1%) 등의 순이었다.

내년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도 좋지 않아 전년보다 5.1포인트 하락한 91.7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전망하는 내년 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3.4%로, IMF(4.0%), 한국은행(3.9%), LG경제연구원(3.9%), KDI(3.5%)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았다. /김태균기자

'영국 크리스마스' 이벤트 공간 14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조성된 영국 테마 크리스마스 이벤트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미니 열차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끝없는 유가 하락, 희비 엇갈려

항공 '웃고' 정유업 '울상'… 수요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도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산(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도입 원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12일(현지시간) 배럴당 60.51달러로 거래되며 60달러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유가가 하락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긍정적이다. 우선 원유 수입 비용이 줄어들고 유가 하락으로 수출입 교역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수출 가격이 2.9% 내려가는 동안 유가하락으로 수입가격은 4.2% 떨어졌다.

유가하락으로 가장 수혜를 얻는 업종은 항공·해운 등 운송업이다.

대한항공은 연간 유류 소모량이 3200만 배럴로,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내려가도 엄청난 규모의 유류비를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은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유류비 절감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50.3% 증가한 2407억원을 올렸다.

해운업계는 유가가 떨어지면 연료비가 적게 들어 선박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원유가 쌀 때 미리 사놓으려는 수요가 몰려 유조선 발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수요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10월 자동차 판매가 유가 하락세를 타고 6% 증가했다.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안정세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고, 이는 세계 경기 위축과 맞물려 수요 부진을 가속화한다.

국내 제조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정제산업, 조선업 등은 유가 하락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유정제업의 경우 유가가 떨어지면 원유를 정제해 만든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마진이 낮아져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3분기 영업이익률 -1.1%로 971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조선업계도 유가가 더 떨어지면 해저에서 채굴하는 원유의 채산성이 떨어져 해양플랜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삼성 순환출자 1년 새 20개 감소

오는 18일 제일모직의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순환출자 구조로 꼽혀온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제일모직'으로 이어진 순환출자가 1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계열사 상장과 합병 등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최근 1년 새 20개가 감소하게 된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배구조 변화를 추진하는 삼성그룹의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는 작년 30개에서 제일모직 상장 후 10개로 2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는 출자구조가 계열사 A사에서, B사와 C사에 연결되고선 다시 A사로 이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출자구조는 막대한 계열사 자산을 투자 등에 쓰지 않고 대주주가 지배권강화를 위해 계열사 지분 확보에 묶어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그룹은 당초 순환출자 고리 30개 중 ▲삼성SDI와 제일모직 합병으로 10개 ▲삼성생명의 삼성물산 지분 처분으로 6개 ▲삼성카드의 제일모직 주식 처분으로 7개 등 모두 23개를 줄였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보유하던 삼성물산 지분을 올해 6월 삼성화재에 넘기면서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생겨나 1년 새 20개 고리가 사라지고 10개만 남게 된 것이다. /박성훈기자 zen@

로또복권 제62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7	12	15	23	42	1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499,942,8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0,808,495
3등	5개 숫자 일치	1,382,012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본격 스키 시즌… "할인 카드 꼭 챙기세요"

카드사, 스키장과 제휴 마케팅 경쟁 활발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카드사들이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국내 스키장과 손잡고 리프트와 장비 렌탈, 강습 할인부터 온천, 스파 이용까지 다양한 스키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각 스키장마다 제휴 카드사별 혜택이 다르지만 스키장으로 떠나기 전 지갑 속 카드를 체크하면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스키를 탈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곤지암리조트와 비발디파크 등 국내 10곳의 스키장과 손잡고 렌탈과 강습,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리프트·렌탈 25~60%, 기초단체강습·눈썰매장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의 우수고객인 'Tops(탑스) 클럽' 고객은 리프트, 렌탈 결제 시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이동점포 차량(뱅버드)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내년 3월까지 한솔 오크밸리 리프트권 최대 60% 할인 등 리프트권과 렌탈 20~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용평 리조트(매주 금요일 심야권) ▲보광 휘닉스파크(매주 화요일) ▲웰리힐리파크(매주 월요일 오전권)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매주 일·목요일 심야권) ▲한솔 오크밸리(매주 목요일) 등 5개 스키장의 경우 특정 요일에 리프트권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

롯데카드는 리프트와 렌탈, 부대시설 등을 최대 60% 할인해 주는 '롯데카드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를 마련했다. 고객은 에덴밸리리조트 등 12개 주요 스키장에서 전달 실적, 입장인원에 관계없이 최대 60%를 현장 할인받을 수 있다. 스키장별로는 '롯데카드 DAY'도 마련돼 리프트 심야권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휘닉스파크, 비발디파크 등 전국 8개 스키장에서 리프트, 장비 렌탈과 강습 이용 시 스키장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삼성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스키장 내 리프트권 판매처와 장비 대여소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스키장 이용이 가능하다.

하나카드는 오는 2월 말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오크밸리 스키장에서 '만원의 써프라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카드(구 하나SK카드 및 외환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리프트 주간권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동반 3인까지는 준 성수기, 성수기 등 기간에 따라 25~6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비발디파크·양지파인·웰리힐리·에덴벨리 등 8곳과 제휴를 맺고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리프트권과 렌탈·강습을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에덴벨리에서 금요일 야간과 주말 오전 리프트권 등을 이용 시 7%를 단독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엘리시안 강촌에서는 객실 요금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있다.

스키장 관련 할인뿐만 아니라 차량 무상점검을 해주기도 한다.

NH농협카드는 실속 있고 안전한 스키장 가는 길을 위해 엔진오일 할인과 차량 무상점검 등 차량 관련 행사도 한다. 고객은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2만원 할인과 부동액 1만원 할인, 22개 사항에 대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용평리조트와 하이원리조트·비발디파크·휘닉스파크 등 전국 10개 주요 스키장에서 농협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추가 사은품 증정과 휘닉스파크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한편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스키장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혜택도 각기 다르다"며 "주말과 주중, 낮과 밤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니 정확한 혜택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내국인도 환전상에서 외화 산다"

규정 개정 새해부터

새해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국인도 가까운 환전상에서 미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게 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환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국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외화 매입·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으나 내국인 상대로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가능했다.

한은 측은 "(이번 개정은)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은행보다 환율을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의 환전산 이용은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환전상이 외화나 원화를 하루 2000 달러 이하로 (동일인 한도) 매입할 때 발행하는 별도의 증명서도 사라진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종전 건당 10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확대된다.

환전상은 지난 2009년(연말 기준) 1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이 늘면서 올 들어서는 이미 114곳이 늘었다.

환전상은 과거 한때 인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im1@

금감원 Q&A

리스車 고장, 수령증 받았으면 책임 못물어

Q. 리스한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물건수령증 발급이 완료됐으므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A. 리스 이용자가 리스회사에서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았다면 정상적인 물건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회사를 상대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 이용자가 자동차판매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고객의 이용기간이나 리스 종료시 자동차 구매 여부 등을 고려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차를 정하면 리스회사가 자동차 판매자로부터 취득해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이와 달리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보유하거나 취득한 차를 이용자에게 대여해주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차의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리=김현정기자

사운즈 오브 알리안츠 행사 개최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운즈 오브 알리안츠(Sounds of Allianz)' 행사를 개최하고 고객 300여명에게 바이올린 연주와 만찬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명재(가운데) 알리안츠생명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제공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신뢰 얻는 길"

장남식 손보협회장, 업계 인식전환 필요 지적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어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저금리 기조 유지, 저성장 시대 등 각종 악재에 처한 가운데 자구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 업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현재 위기를 타개할 세부적 해결방법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는 "지난 2010년 정부주도의 종합대책 이후 일부 개선되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대물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올해 적자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미사고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렌트비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회는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약 70%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업계 차원의 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 건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실손의료비 지급심사의 심평원 위탁 중장기 검토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보장성보험 활성화와 재난관련 의무보험(28개) 중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률의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최근 급성장 중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비롯한 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에 대해서는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퇴출대리점우회진입금지, 공시의무 위반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감독당국에 지속 건의함으로써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을 유도해 불완전판매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GA 설립 요건 까다로워진다

당국, 최소자본금 제도 도입·수수료 높은 특정상품 판매 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법인독립보험대리점(GA)의 설립에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였던 GA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 설립에 최소자본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국은 공청회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GA는 상법상 자본금 한도 규제가 없고 금융당국에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증금으로 법인 GA의 경우 3억원, 개인 대리점은 1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영업보증금으로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국은 수수료가 높은 특정상품만 판매하는 GA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다.

당국이 GA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GA 난립으로 인한 경쟁 과열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4285개이던 GA가 지난해 9월 말 4624개로 7.9% 늘었다. 하지만 올해 9월 말에는 4618개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소속설계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9월 말 기준 17만959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설계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보험산업에서 GA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GA의 지난해(3~12월) 신규 보험 판매액은 23조3430억원으로 전체 보험 판매액의 36.6%를 기록해 전년(30.58%)보다 비중이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설계사가 GA로 몰리면서 업체 간 설계사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또 설계사들이 판매수수료에만 열을 올리고 고객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 기준 GA의 불완전 판매율은 9.13%로 생명보험사(3.8%)나 손해보험사(2.1%)보다 3~4배 높다. 방카슈랑스, 홈쇼핑 등 타채널과 비교해도 불완전 판매율이 월등히 높다.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GA시장이 최근 보험업계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설계사들의 이동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사라지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이들도 생존을 위해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건강 잠자리 겨울이불 세탁법

짠순이 주부 경제학

찬 기운이 완연한 겨울, 숙슬 체온을 높여주는 따뜻한 겨울 침구로 바꿀 시기가 왔다.

특히 겨울 이불은 크기만큼이나, 소재와 관리법도 제각각이다. 겨울 이불은 제대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건강한 잠자리를 위한 겨울 이불 소재별 올바른 세탁법을 알아보자.

우선 거위털 이불은 물세탁이 가능하다. 세탁기로 세탁해도 무방하지만, 온수보다는 냉수 코스를 선택하는 게 좋다. 세탁 후에는 털이 뭉쳐지지 않도록 넓은 장소에 펴서 말리는 것이 좋다. 말리는 동안 양 손바닥 사이에 이불 부분부분을 넣어 톡톡 두드려주면 털이 상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나 너무 잦은 세탁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평상시에는 일광소독을 하고, 1년에 2회 정도 세탁하는 것이 좋다.

양모 솜은 소재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잘 털어주고, 햇볕 소독을 하면 드라이 클리닝을 자주하지 않아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찬물에 물 세탁해도 되지만 자주 세탁하면 부피감과 탄력이 떨어져 수명이 짧아져 햇볕 소독 위주로 관리하는 게 좋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햇볕이 가장 좋은 시간에 약 2시간 동안 일광 건조한다.

반면 천연 목화 솜은 물에 닿으면 뭉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탁은 금물이다. 방망이로 두들겨 먼지를 털고 햇빛에 말려 살균한다.

이불 커버는 대부분이 면이다. 면 커버는 타월 등과 함께 세탁하면 먼지 등이 묻기 때문에 단독 세탁하는 것이 좋다. 탈수기에 오래 두면 구김이 심해져 세탁 후 바로 꺼내서 탈탈 털어 널면 구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극세사 이불처럼 솜이 들어간 차렵 이불의 경우는 이불장의 맨 윗 칸에 올려둬야 다른 이불에 눌려지지 않는다. 이불 사이에 신문지를 뭉쳐 넣어두면 습기 예방이 된다. 숯을 종이에 싸서 이불장에 넣어두면 천연 방습제가 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앞줄 오른쪽부터)이형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를 비롯한 소방관과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순직·공상퇴직 소방관에게 '생명보험의인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소방서에서 고(故) 강수철 소방관 등 39명의 순직·공상퇴직 소방관을 선정해 '생명보험의인상'과 시상금 1억원을 전달했다.

시상금을 받은 고 강수철 소방관은 휴가 중 제주 서귀포시 단란주점 화재 진압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던 중에 호흡기가 벗겨지면서 유독가스에 질식돼 순직했다.

앞서 생보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나 공동체,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일반인에게 '생명보험의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소방관의 경우 생명존중을 몸소 실천한 순직·공상퇴직소방관의 노부모 생활지원금과 자녀 장학금으로 나누어 지금까지 162명에게 7억원을 전달했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구조되고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시상으로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이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B금융 사외이사 권한 대폭 축소

LIG인수 이달 내 승인

KB금융지주 내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사외이사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사외이사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KB금융의 최고 경영진이 맡는 상임이사 수는 늘리는 등 지주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은 이달 안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됐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지난 주말쯤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KB금융 사외이사 전원이 내년 3월 주주총회 후 사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적 청산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유사상황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해왔다.

개선안에는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기업인과 금융인, 주주 대표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사외이사 수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또 KB사태 당시 지주 9명, 은행 6명 등 총 15명에 달하는 사외이사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시각을 받아들여 은행 사외이사 수를 대거 줄여 지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외이사를 줄이는 대신 KB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맡는 상임이사 수는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이사회 내 상임이사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1명뿐이다.

사외이사들의 실질적인 권한도 축소한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선임은 물론 주요 경영사항까지 대부분 결정해 '제왕적 이사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어윤대 전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ING생명 인수를 부결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KB금융은 지주 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주요 결정에서 더욱 많은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축소할 방침이다. 지주와 계열사 핵심 경영진으로 이뤄진 그룹경영협의회도 조직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안은 당국의 LIG손보 인수 승인 과정에서도 최종 관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B금융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LIG손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현정기자

대우증권 신임 사장 홍성국씨

KDB대우증권은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성국(사진) 리서치센터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홍 센터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사장 후보로 확정됐다.

1963년생인 홍 신임 사장은 지난 1986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서 공채로 입사해 28년 외길을 걸어온 정통 '대우증권맨'이다.

그는 투자분석부장, 홀세일사업부장(전무), 리서치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융투자업계를 넘어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김현정기자 hjkim1@

수익형부동산 유입 자금 내년에도 '쭉~'

2014년은 다양한 대출제도와 금리인하(2%)로 은행에 있던 돈이 제2의 월급통장으로 불리는 수익형부동산으로 유입됐다. 이는 그동안 침체였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으로는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등이 있다. 2015년에도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은 수익형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 상가

상가는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올해 상가시장은 아파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일반적인 단지 내 상가 보다는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한 거리형 상가들이 인기였다. 테라스 상가도 공간 활용 측면에서 우수하고 접근성도 좋아 당분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간 침체된 경기의 회복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현재 아파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투자 전망은 높아 보인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위례신도시·마곡지구·세종시 등이 주목받고 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1억원대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역세권·대학교 인근·업무 밀집지역 등에서 수요확보가 용이해 수익률 측면에서도 강세다. 전세난의 해결책으로도 20~30대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 세금부담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매제한·대출규제에도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지역은 오피스텔 공급과잉 상황이지만 최근 송파, 강서, 마포, 마곡 등 역세권과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의 가격과 임대료가 꾸준하게 오르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4 결산	2015 전망
상가	아파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강세	저금리 기조로 투자처 많아 보합세
오피스텔	업무지역, 신도시에서 강세	높은 분양가와 공급과잉에 주의 전세난 대안으로 반사이익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문제 난항, 공급과잉으로 주춤	부지 부족으로 국지적으로 고립 전세난 대안으로 반사이익
지식산업센터	정부정책 개선 없어 제자리	정부정책 개선으로 임대시장 활기
분양형 호텔	외국인관광객증가, 투자활기	지역적, 지리적 편차 심화 공급과잉 우려

◆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 대학가 주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2009년 처음 시행했고 한동안 인기를 끌다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늘고있다.

공급과잉은 공실률을 높이고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문제를 일으켰으며 주차장 기준 강화로 입지가 적어지는 실정이었다.

오피스텔, 상가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주차요건 강화로 공급이 줄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평택 등과 같이, 아직 수요층이 많은 만큼 국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 지식산업센터

2013년 7월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대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개선된다는 전망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규제를 풀 경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임대 제한 규제 폐지는 공언한 지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이 규제가 풀린다면 일반개인이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아 임대할 수도 있다. 임대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며 새로운 수익형부동산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권에 집중됐다.

◆ 분양형 호텔

국내 외국인관광객은 2012년부터 1000만명을 넘는 오름 추세에 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하는 분양형호텔이 주목받고 있다.

객실을 분양받거나 임대수익을 배분받는 분양형호텔은 보장된 고수익이라는 광고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인천·대전·부산·제주 등에서 늘어났다. 시행사가 위탁관리사에 운영을 맡기고 투자자들은 운영수익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인근, 대기업 밀집 지역까지 공급을 넓히고 있다.

◆ 무작정 투자는 낭패

전세시장에 여파를 준 금리 인하(연 2%)는 선진국인 미국 0~0.25%, 일본 0.05%, 유럽중앙은행 0.15%, 영국 0.5%, 홍콩 0.5%, 캐나다 1.005%, 대만 1.87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보다 아직도 높다.

이런 상황이라면 베이비부머(1946~65년 출생자)는 발빠르게 투자처를 모색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수익형부동산은 은행이자 대비 2~3배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지만 무작정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본다. 투자자는 배후수요와 유동인구가 탄탄한지 따져봐야 하며 매입 전에 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수익성을 판가름 할 수 있어야 한다.

꼼꼼 IT 리뷰 – 아토믹 플로이드 '슈퍼다츠 티타늄'

세련된 디자인과 고해상도 사운드

최대한 음악의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 높은 가격대의 프리미엄 이어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사운드에 치중해 디자인이 아쉽거나 디자인은 세련되지만 소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 프리미엄 이어폰 브랜드 아토믹 플로이드가 최근 국내에 출시한 '슈퍼다츠 티타늄'은 디자인과 사운드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어폰이다. 이 제품은 아토믹플로이드의 플래그십 모델인 '슈퍼다츠'의 티타늄 버전이다. 귀에 꽂는 부분인 드라이버의 하우징과 리모트 컨트롤, 플러그 부분에 기존의 스틸이 아닌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다.

하우징과 케이블에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슈퍼다츠와 달리 무광의 티타늄 재질과 검은색 케이블로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또 스틸보다 가벼운 티타늄으로 무게를 줄여 귀에 꽂았을 때 처짐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운드는 상당히 균형 잡힌 편이다.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저음역대를 강조하는 다이내믹 드라이버와 선명한 느낌의 고음역대 재생에 좋은 밸런스드 아마추어(BA) 드라이버 2개가 모두 탑재돼 특정 음역대가 묻히지 않고 고른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소리의 해상도 역시 높아 소리가 뭉개지거나 울리지 않고 또렷하고 선명하다. 특히 고음역대의 해상도가 높아 치찰음이 적당히 강조되는 독특한 사운드를 낸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어본 결과 고음의 보컬, 일렉트릭 기타, 피아노 소리가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들린다.

줄 꼬임이 적은 케이블도 매력적인 요소다. 플러그쪽 케이블에는 고강도 섬유인 케블라를 사용해 선이 덜 꼬이며, 패브릭 느낌으로 촉감이 부드럽고 IT기기의 차가움을 덜어낸다. 이어팁은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어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하다. 귀에 꽂는 방향으로 실리콘을 눌러도 단단한 느낌이어서 이어팁의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부 소음을 거의 차단한 채 음악에 집중할 수 있다.

리모트 컨트롤이 탑재돼 스마트폰 연결시 본체 조작없이 편리하게 재생·멈춤·곡넘김·볼륨조절 등의 기능은 물론 통화를 받고 끊는 것도 가능하다. 단 안드로이드 OS에서는 볼륨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삼성, 기어서클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에서 목걸이형 웨어러블 기기 '기어 서클'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부회장 3남매 주식 대박

최근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이 역대 최대 규모의 흥행을 기록했다. 또 오는 18일 상장을 앞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의 자산 변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 상장시 이 부회장의 차익 규모는 공모가 5만3000원 기준으로 1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최대주주로 보유주식 규모가 3136만9500주에 달한다. 상장 후 기준 지분율은 23.24%.

뒤를 이어 제일모직이 자사주 1903만3800주(14.1%), KCC가 2125만주(10.19%)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두 여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각각 1045만6450주(7.75%)를 가지고 있다.

공모가 기준 상장차익은 이 부회장이 1조6580억원이며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각각 5526억원이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들의 시세차익은 더욱 불어난다. 대다수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 10만원을 적용하면 이 부회장은 3조1321억원,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각각 1조440억원의 상장차익을 얻는다.

/박성훈기자 zen@

찾아가는 모바일 광고 급성장

잠금화면에 노출하는 틈새 아이디어 눈길

직장인 강모(27)씨의 스마트폰 잠금화면에는 광고 이미지가 뜬다. 강씨가 광고를 확인하고 잠금화면을 해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잠금화면을 해제하는데 매번 재미난 광고 이미지를 보면서 적립금을 받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이용자 4000만 시대를 맞아 모바일 광고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광고 노출과 보상을 병행하는 것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다.

NBT파트너스의 '캐시슬라이드'는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플랫폼이다. NBT파트너스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하루에 잠금화면을 푸는 횟수가 평균 60번이란 통계에 착안했다. 캐시슬라이드 이용자는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나타나는 광고를 보고 해제할 때마다 적립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캐시슬라이드는 사용자가 그동안 내려받은 앱 성향을 분석해 맞춤 콘텐츠를 노출시킨다. 거주 지역·성별·연령·광고량에 따라 노출 광고 이미지를 달리하는 것이다. 식음료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아이스크림과 커피 광고를 추천하는 식이다.

이를바탕으로 캐시슬라이드는 서비스 22개월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해 매출만 200억원을 기록했다. NBT파트너스는 지난달 '지스타 2014'에 참가해 효율적 마케팅을 위한 모바일 광고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캐시슬라이드'. 이용자는 잠금화면에 노출된 광고를 확인할 때마다 적립금을 받는다. /캐시슬라이드 제공

모바일 게임 맞춤 광고 플랫폼도 등장했다. 온라인 게임보다 개발 비용과 출시 간격이 짧은 모바일 게임은 일주일에도 많으면 수십개가 동시 출시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출시 초기에 소비자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사장되기 쉽다.

양유는 모바일 게임 사전 예약 앱 '얼리버드'를 서비스한다. 광고주들이 이 광고 플랫폼에 홍보할 게임의 출시일과 게임 앱 정보를 등록하면 얼리버드 가입자에게 출시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얼리버드 이용자가 광고를 통해 전해받은 게임 다운로드를 예약하면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다.

양유 관계자는 "얼리버드는 출시 전 사전 예약 기능을 활용해 모바일 게임 가입자 규모와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다. 모바일 게임은 집중적인 초기 마케팅으로 앱 순위를 상승시켜 시장에 빨리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스마트폰을 손에 쥔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중소형아파트, 대형처럼~

4-bay 열풍에 발코니 확장 필수로

아파트 베이(bay) 경쟁이 치열하다. 수요자들이 분양가·관리비 부담이 적은 중소형아파트를 선호하면서, 건설업계가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특화평면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는 4베이, 59㎡는 3베이가 기본 평면이 되고 있다. 이전 3베이, 2베이에서 각각 1개 베이씩 늘어난 것이다.

베이란 아파트 전면부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등 벽면으로 나뉘어 독립화된 공간의 수를 말한다. 아파트 전면이 보통 남향인 점을 감안할 때 베이가 많을수록 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와 통풍에도 유리하다.

또 85㎡아파트에 40㎡의 서비스면적이 더해지면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40평대와 같은 공간감을 누릴 수 있다. 중소형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인 좁은 공간을 혁신적으로 넓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베이'인 셈이다.

이이 따라 4베이가 적용된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성적도 좋게 나타난다. 최근 경기도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공급된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은 84㎡뿐 아니라 59㎡에도 4베이 평면을 적용한 결과, 16.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말 막바지 분양 단지들도 4베이 평면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호반건설은 시흥 목감지구와 수원 호매실지구 '호반베르디움' 전 세대를, 한양은 세종시 3-3생활권 '세종 한양수자인 엘시티' 94%를, 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백석3차 아이파크' 85%를 중소형 4베이 평면으로 채웠다.

다(多)베이 아파트일수록 기본적으로 서비스면적이 늘어 수요자에게는 이익이지만 전문가들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전면에 주방을 제외한 방·거실 모든 공간을 배치하다 보면 가로 폭이 길어지고, 세로 폭은 좁아지는 납작한 형태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이 경우 데드스페이스(dead-space)인 복도가 길어져 면적은 넓어지지만 정작 활용은 어렵다.

특히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두고 평면을 만들다 보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평면이 기형적으로 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확장선택시 84㎡ 기준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

최근 전용면적 59㎡는 3베이(좌), 84㎡는 4베이(우) 평면이 기본이 되고 있다.

철강협회, 사랑의 연탄 배달 한국철강협회(회장 권오준)는 1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 등 14개 철강업체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 어르신 20가구에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철강협회 제공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16GB, 가격 추락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16GB모델 가격이 소비자에게 외면받으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열풍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

최근 월마트가 미국 주요 통신사용 16GB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의 가격을 내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마트는 AT&T,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스프린트사용 16GB 아이폰6를 최저 129 달러에 판매한다. 2년 약정 조건으로 이번 주부터 적용된다. 이는 월마트가 지난 추수감사절 할인가에서 50달러를 더 내린 것이다.

또 대화면 아이폰6 플러스도 2년 약정 조건으로 279 달러에서 50 달러를 할인해 229 달러에 판매한다.

소비자가 찾지 않는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16GB모델의 가격을 낮춰 소비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 움직임은 최근 고사양 애플리케이션의 등장과 내장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 OS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는 사용자가 사진·동영상·음악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영역 외에도 단말기가 구동되는데 필요한 운영체제 및 시스템 관리 영역에도 사용된다.

애플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국내에서도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구매 시 내장메모리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왕십리소재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최근 고사양 애플리케이션 등장을 물론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용량에 따른 모델별 가격차이가 많지 않아 기왕이면 64GB나 128GB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많다"며 "매장에도 16GB 제품은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재고가 국내에서만 1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통신업계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16GB 모델의 국내 재고가 이동3사를 모두 합쳐 약 10만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6 16GB가 모델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써서라도 처분해야 할 악성 재고"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공개하라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정당 국고보조금제도가 새삼스럽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에 쓰도록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게 사용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정당은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원리상 국고를 지원받는 것이 맞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자유로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국고 사용실태를 엄격히 감시하고 점차적으로는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수현 의원과 함께 작성한 '당 혁신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당 대표의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이 돈을 돌려받아 선거경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새누리당도 2012년 정책개발 용도로 썼다고 신고한 다음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밝혀져 이듬해에 1억3000만원을 삭감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당직자와 당원들의 유흥업소 술값으로 썼다는 증언도 나오고, 당 지도부의 회식비나 화환 값은 물론 당원단합대회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정당 국고보조금은 지난 1980년 이후 33년간 1조원이 넘게 지원됐으나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된 일이 없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4~2013)정당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51건에 13억4542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몇 배가 될지도 모른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내란선동혐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에도 어김없이 지원돼 오고 있다. 올해에만 61억원이 나갔다. 따라서 정당국고보조금은 이제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 전면적으로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자정(自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은 사용내역서를 추호의 오해가 없도록 공개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변칙으로 지출했을 경우 지금의 2배정도 삭감규모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만이라도 투명하게 쓸 줄 알아야 정치권 신뢰회복의 길이 열린다.

포토프리즘 애완견과 함께 설경을…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한 시민이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내리는 눈을 보고있다. /손진영기자 son@

탄소 할당 16억t 기업들은 어쩌라고…

뉴스룸에서

김 민 준
<경제·산업부장>

과거 많은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치중해 환경과 에너지를 도외시했다면 지금은 경제발전에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 중이다. 당장 우리 정부는 저탄소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감축 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1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차, 2021년 이후 5년 단위 3차 로드맵을 제시했다. 할당량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 동안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억9800만t(이산화탄소 환산)의 할당량을 각 기업별로 통보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이 중 상위 10개 업체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현대제철, 쌍용양회공업,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등이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배출권을 너무 과소 할당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20억2100만t을 신청했는데 할당량이 무려 4억2300만t이나 부족하다. 이럴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해 추가로 시장가격의 3배인 1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에 환경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설비투자에 집중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올해 국내 석유화학, 철강 업종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최악의 영업 실적을 기록했다. 설비 투자 여력이 전무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국내 기업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관련 규제로만 2012년 2조50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로 각종 환경규제들을 도입할 움직임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기에 몰린 국내 기업들에게 15억9800만t의 탄소할당량을 배정한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주저하지 말고 불태우자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지난달 막을 내린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10회를 맞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행사의 내용도 초창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성숙해졌다고 말하지 못해 안타깝다. 하지만 2014년에 내건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 만큼은 눈에 띄었다. 행사장을 돌다 보면 자칫 이 주제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은유처럼 읽히지만, 문득 세계적 작가의 작품 앞에 서면 인류사적으로 더 원대하고 숭고한 의미가 담긴 주제란 걸 알 수 있다. 삶의 터전을 불태우라고 외치는 것은 "죽자"가 아니라 "살자"다. 수명을 다하면 재가 됐다가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우리네 삶도 이제까지 만들어진 가치가 소진되면 기꺼이 불태우고 그 재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가치의 싹을 틔워야 한다.

최근 개봉한 '국제시장'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지만, 시대의 화염에 영혼과 육체를 기꺼이 불태웠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불사조를 동네 까마귀로 취급했던 사회의 몰인정에 짠하기 이를 데 없다. 당신들이 가장 빈번하게 들었던 말, 가슴을 후벼 팠던 송곳의 말은 "누가 그러라고 했어"일 것이다. 그랬다. 아무도 스스로를 태워 가족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주변을 밝히라고 한 적 없었다. 그저 스스로 그래야만 한다는 걸, 그렇게 삶을 소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믿었을 뿐이었다. 그 믿음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시공간을 만들어냈다. 당신들의 재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는 2001년 CEO 채용 인터뷰에서 "나는 매년 버닝맨 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말한 덕분에 지금에 이르렀다. 매년 9월이면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서 열리는 이 행사는 5만여 명의 사람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축제를 즐기는데 물과 커피를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한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목조물과 함께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며 끝낸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말한다. 일주일 동안 아낌없이 태워야 1년을 살 수 있다고. 네바다 사막은 198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길로 채워졌었다.

주저하지 말고 불태우자.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스마트폰 출시 5년, 사용자 지혜 필요

기자수첩

양 성 운
<경제산업부 기자>

국내에서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5년째를 맞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40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고령층 등을 제외하면 국민 1인당 1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언제나 '빨리빨리'를 외치던 우리 삶의 기다림은 줄어들었고,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3GS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다.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동 중 정보 검색은 물론 게임, 동영상, SNS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 중독, 세대 간 소통 단절,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파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 콘텐츠 유통, 사이버 폭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혼식장이나 돌잔치 등 행사장에서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가족 식사 자리나 모임 장소에서는 대화 보다 스마트폰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찾아가 칼부림을 하거나,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부작용도 커진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화 5년째를 맞은 가운데 사용자 스스로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대한 억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세단과 SUV의 장점 모두 모았다

■ 메르세데스 벤츠 GLA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충동구매를 할 때가 많다. 특히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 제품 앞을 그냥 지나치기란 쉽지 않다. 하나 둘씩 담고 나서 집에 와 보면 쓸모없는 물건도 있지만, 알차게 쇼핑했다는 보람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근 내놓은 GLA를 보면 쇼핑할 때 만나는 1+1 상품이 떠오른다. 세단의 장점에 다 SUV의 장점을 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BMW에 비해 크로스오버 차종 개발이 부진했던 벤츠는 최근 세단과 SUV, 미니밴 외에도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차가 바로 GLA다.

▲한 줄 평가: 아담한 사이즈에 세단보다 다양한 매력을 담았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겉모습은 A클래스를 부풀린 느낌이다. 특히 A클래스보다 65㎜ 높은 차체가 오프로더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차체 크기는 BMW X1과 유사하다. GLA의 차체 길이는 X1보다 14㎜ 짧고, 35㎜ 낮다. 대신 차체 너비는 GLA가 7㎜ 넓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GLA가 X1보다 60㎜ 짧은 만큼 실내 공간도 X1보다 다소 좁다.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421ℓ가 제공되고, 뒷좌석을 접으면 836ℓ까지 넓힐 수 있다. 또한 뒷좌석을 15도로 세우면 적재공간이 481ℓ로 늘어나는 기능도 갖췄다.

대시보드는 A클래스의 것을 활용했다. 아이패드를 얹은 듯한 모니터와 세 개의 원형 송풍구, 간결한 센터 콘솔 디자인에서 A클래스의 흔적이 엿보인다.

수입 모델은 GLA 200 CDI와 GLA 45 AMG 4매틱 등 2가지가 있는데, 시승차는 200 CDI가 배정됐다. 이 차는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0.6㎏·m의 2.2ℓ 디젤 엔진을 7단 DCT와 조화시켰다. 차체 크기를 감안할 때 큰 부족함이 없는 제원이지만, BMW X1과 비교하면 열세다. X1은 18d HIGH와 20d로 나뉘는데, 각각 143마력과 184마력의 디젤 엔진을 얹어 GLA를 압도한다.

공회전 상태의 소음은 GLA나 X1이나 비슷하다. 가솔린 엔진보다 다소 거친 호흡을 내뱉는 GLA는 정속 주행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벤츠의 7단 듀얼 클러치가 정확한 변속 타이밍을 잡아내 엔진과 바퀴를 이어주면서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을 돕는다. 서스펜션은 세밀한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준다.

GLA의 토대가 된 A클래스의 경우 180 CDI만 수입되는데, 이 차는 1.5ℓ 디젤 터보 엔진을 얹어 힘이 다소 부치는 느낌이다. 그러나 GLA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파워가 높은 효율을 이끌어 낸다. 정지에서 시속 100㎞ 가속시간은 9.9초로 BMW X1 18d(10.1초)보다 빠르고, X1 20d(8.1초)에 비해 느리다.

테스트에 앞서 전달 받은 연비는 도심 14.3, 고속도로 19.5, 복합 16.2㎞/ℓ. 시가지와 고속도로를 4:6의 비율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5.0㎞/ℓ를 나타냈다. 고속도로 비중이 높아진다면 더 뛰어난 연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GLA는 세단보다 넓은 공간을 원하지만 SUV 크기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가장 어울린다. 국내 수입되는 모델은 충돌 방지 어시스트를 비롯해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의 첨단 안전장비가 포함돼 든든하다.

GLA는 200 CDI가 4900만원, 45 AMG 4매틱이 7110만원으로 판매된다. BMW X1 18d가 5110만원, X1 20d가 5480만원에 팔리는 것과 비교할 때 주력 모델의 가격경쟁력은 내세울 만하다. 좀 더 다양한 엔진 베리에이션을 갖출 경우 더 많은 판매가 기대된다.

/ferrari5@metroseoul.co.kr

현대차, 소외계층에 김장 전달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동호회 자원봉사단, 지자체와 함께 뜻 깊은 이웃 사랑을 나눴다.

현대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김장김치 2000여 포기를 직접 담가, 서울지역 소외계층 400여 가구에 배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동호회 지자체와 함께 소외계층에 김장김치 2000여 포기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 동호회 연합 자원봉사단, 강남구청 공무원 및 자원 봉사자, 현대차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400여명이 함께한 협력 봉사로, 겨울철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그랜저	–	–	2,170	2,440	2,790
	YF 쏘나타	–	1,250	1,270	1,390	1,690
쉐보레	스파크	–	510	930	710	890
	크루즈	–	800	1,250	1,350	1,600
기아	스포티지R	–	1,650	1,700	1,840	2,030
	쏘렌토	–	1,750	1,900	2,110	1,920
BMW	5시리즈	–	3,380	3,680	4,240	4,660
	3시리즈	–	3,200	3,270	3,540	3,900
폭스바겐	티구안	–	2,480	2,660	2,980	3,350
아우디	A6	–	–	3,890	4,290	4,600
벤츠	C클래스	–	2,710	3,030	3,270	3,74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기아차, 'K9' 특별 전시공간 마련

기아자동차가 K9 퀀텀 띄우기에 나선다.

기아차는 13~21일까지 9일간 삼성동 파르나스 몰에 K9 퀀텀을 전시해 고객이 K9의 새로운 디자인과 개선된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K9 퀀텀은 기아차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에 기아차 최초로 5000㏄급 엔진을 장착해 새롭게 태어난 초대형 프리미엄 세단이다.

기아차는 파르나스 몰 메인 입구에 블랙 유리 큐브를 설치하고 그 안에 K9 퀀텀을 전시했다. 특히 블랙 큐브 표면에 K9 퀀텀의 디자인을 스케치 하는듯한 영상을 투사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또 디자인 스케치 영상이 끝난 후에는 블랙 유리 큐브 안의 조명을 통해 반전 연출을 시도해 K9 퀀텀의 매력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승을 원할 경우 전시장 주변 구간 주행을 통해 K9 퀀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

기아차는 상담 및 시승 후 설문에 답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11월 17일 더 뉴 K9 출시 이후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12월 하루 평균 계약대수가 론칭 전과 비교해 3배 이상이나 증가했다"며, "더 많은 고객들에게 K9의 변경된 디자인과 높아진 상품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K9(현지명 K900)이 미국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 로드 앤드 트래블이 선정한 2015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기아차가 글로벌 브랜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소셜커머스 업계, 연말 '쩐의 전쟁'

쿠팡 6개월 만에 3억 달러 유치… 티몬도 추가 투자처 모색

coupang Color Your Days | TMON | 위메프

국내 소셜커머스 업계에 해외 자본이 잇따라 유입되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최근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이 주도한 투자사들로부터 3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3322억원으로 비상장 IT 기업·이커머스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벤처캐피털인 세쿼이아 캐피털로부터 1억 달러(약 1026억원)를 유치한 지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투자로 쿠팡의 기업가치는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쿠팡은 투자 받은 자본을 배송 서비스 강화, IT R&D에 사용할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기 보다는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 한정된 쿠팡맨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IT 기반 혁신을 위한 기술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티몬은 미국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티몬에 따르면 최근 그루폰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가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현재 투자안내서를 보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진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메프도 최근 몇곳에서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는 3사 중 유일하게 창업자인 허민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투자처에게는 큰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는 잇따른 투자 유치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빠르게 시장이 커왔고 투자 없이는 이런 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쩐의 전쟁'이 또다시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년 전 500억원 대에 불과했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올해 4조원 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단 기간에 이만큼 성장한 시장도 드물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빅모델 기용, 광고, 쿠폰 발행 등 매년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 업체 특성상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탄탄한 재무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며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집밥' 같은 간편 가정식

떡갈비·장조림 등 제품 인기리 판매

1~2인 가구와 맞벌이부부, 워킹맘 등이 늘면서 덩달아 간편가정식 제품의 인기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집밥'같은 간편가정식 제품이다. 올리브TV의 '오늘 뭐 먹지?', tvN의 '삼시세끼' 등 직접 만들어 먹는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가 집밥이나 집 반찬을 표방하면서도 쉽게 해 먹을 수 없는 간편 가정식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죽 전문점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매장에서 죽과 함께 내놓고 있는 반찬류를 간편가정식 제품으로 판매 중이다. 이 중 '본 쇠고기장조림'과 '본 메추리알 쇠고기장조림'등이 인기다. 장조림은 쇠고기의 핏물을 빼고 고기를 볶다가 물에 오래 끓여 고기를 익혀야 질겨지지 않는다. 이후 간장 양념을 자작하게 졸이며 쇠고기에 수시로 국물을 끼얹어야 해 직접 만들어 먹으려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이 제품은 식사 때마다 조금씩 꺼내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12월 첫째 주 간편가정식 '한우사골곰탕'의 매출이 전주에 비해 70% 가까이 올랐다. 일반적으로 곰탕은 사골 핏물을 빼고 물을 넣어 센 불에 1시간, 중간 불에 3시간 이상 푹 고아줘야 한다. 기름을 걷어내고 푹 익은 사골을 2~3시간 동안 한번 더 끓여주면 완성된다. 하지만 '한우사골곰탕'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간편하게 집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CJ 푸드빌의 '비비고 남도 떡갈비'는 갈빗살을 곱게 다져서 양념하며 치댄 후 갈비뼈에 도톰하게 붙여 양념장을 발라가며 구워 먹는 구이 요리로 조리 과정이 어렵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중간 불에서 살짝 익혀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참이맛 감자탕의 제조원인 CK푸드원은 지난달 '뼈해장국'을 비롯한 팩 타입의 식품 5종을 선보였다. 감자탕은 돼지 등뼈의 핏물을 제거하고 물과 육수 재료와 함께 넣어 2시간 가까이 삶은 후 양념장을 넣어 30분 넘게 더 끓여야 하는 메뉴로 집에서 만들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표 외식 메뉴이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에서 해동 후 끓이기만 하면 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정영일기자

주객이 전도된 '사이드 메뉴'

해마다 매출 10% 이상 꾸준히 성장

사이드 메뉴의 맛있는 반란이 시작됐다. 그동안 커피전문점의 '사이드'에 있던 샌드위치·초콜릿·아이스크림·빙수 등 사이드 메뉴들이 메인 메뉴로 거듭나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포화 상태에 있는 국내 커피 시장에서 해당 업계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드 메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커피와 음료 전문점의 빵·케이크 등 사이드 메뉴 비중이 매년 평균 10~30% 정도씩 상승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사이드 메뉴의 인기와 외식을 즐기는 문화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점차 까다로워지는 입맛의 소비자들은 사이드 메뉴를 메인 메뉴로 즐길 수 있는 전문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에서도 사이드 메뉴로만 제공되는 샌드위치를 메인으로 바꾼 샌드위치 카페 '퀴즈노스'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미국 정통 샌드위치의 맛을 전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15종의 샌드위치 메뉴가 있고, 1년에 1~2개씩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한국형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주문 즉시 제품을 만들어 121℃ 오븐에 1분 동안 구워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카페에서 여름철 한정 메뉴로 만나던 빙수가 이제는 전문점에서 고급스러운 재료와 함께 메인 메뉴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탄생한 부산 지역의 빙수 맛집 '설빙'은 1년 만에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으로 재탄생했다. 인절미 떡과 콩가루를 가미한 인절미 빙수와 토스트가 대표 메뉴인 설빙은 설립 2년도 안돼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300여 개에 달한다. 한국 전통음식의 퓨전화와 세계화를 내세우며 빙수를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산 고급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는 한입 크기의 초콜릿에 견과류와 과일 등의 재료를 사용해 차별화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2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매장이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미국과 유럽·아시아 전역에 약 45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

강강술래 '송년 빅세일'… 최대 50% 할인

21일까지 세트메뉴·한우곰탕 파격인하
전 매장 단체예약시 육회·현수막 서비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 각종 모임과 선물 준비로 부담이 커진 고객들을 위해 가공식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송년 빅세일을 벌인다.

이달 2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인기 메뉴로 구성된 송년세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구이500g+돼지양념구이5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또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박스(800㎖·6팩·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 박스(350㎖·10팩·20인분)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도 약 50% 할인된 6만4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2월 말까지 전 매장에서는 8인 이상 사전예약 때 한우 육회를 테이블당 하나씩 서비스로 제공한다. 20인 이상 예약할 경우 육회는 물론 현수막도 제작 지원한다. 단 구이 메뉴로 일주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대학로 예술공간 유비누리 앱질 전용관에서 공연되는 로맨틱 코미디 '그녀를 믿지 마세요' 공연 티켓도 증정한다.

한편 강강술래는 온라인 마케팅 및 상품 기획, 종합몰·오픈마켓 관리 등을 담당할 온라인쇼핑몰 팀장을 공개 채용한다. 홈페이지에서 입자 지원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jklfds24@sullai.com)로 접수하면 된다. /정영일기자

향기 시장 커지자 '뷰티업계' 가세

브랜드숍, 캔들·디퓨저 등 잇따라 선봬

향초·디퓨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뷰티업계도 관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전문 브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특히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연말을 맞아 시즌 한정판으로 캔들·디퓨저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향기는 물론 포인트 인테리어 효과까지 볼 수 있어 더욱 인기다.

이런 가운데 더샘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아로마 딜라이트 룸 프레그런스'를 출시했다.

그린·바이올렛·핑크 컬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를 향으로 담은 캔들과 디퓨저 등 2종이다. 아로마 딜라이트 캔들은 팜 왁스와 정제된 파라핀 왁스를 블렌딩해 낮은 온도에서도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녹는 것이 특징이다. 아로마 딜라이트 디퓨저는 발향에 가장 적합한 등나무 그대로를 가공해 확산이 빠르다.

프리메라의 내추럴 디퓨저와 캔들은 천연 100% 에센셜 오일 함량 성분의 풍부한 향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기분 전환은 물론 포인트 인테리어 효과까지 제공한다.

내추럴 디퓨저와 캔들은 상큼한 시트러스 향의 '써니 시트러스 가든'과 그윽한 꽃향기가 나는 '화이트 부토니에' 2종이 출시된다.

이니스프리는 세 가지 향기의 캔들과 디퓨저 등 총 13종으로 구성된 '그린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달콤한 레드 베리 향,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크림 화이트 향·민트 초콜릿 향으로 표현한 퍼퓸드 캔들과 디퓨저로 구성했다. 캔들과 디퓨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니트 홀더는 컵 홀더로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아이템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올해 마지막 추억을 남겨요~

르네상스 서울 호텔, 포토 이벤트 'Merry R-Mas!'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Merry R-Mas' 포토 이벤트를 선보인다.

호텔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와 호텔 곳곳의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찾은 후 사진을 찍어 호텔 공식 페이스북에 공유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참여할 수 있다.

호텔은 르네상스 클럽 디럭스 1박 숙박권과 카페 엘리지 식사권 등 총 10명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술 없이 즐거운 송년회?

음주 대신 재미가 넘치는 행사 인기

송년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부어라 마셔라'하는 음주 일색의 송년회를 벗어나 색다른 재미가 넘치는 송년회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색 체험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송년회를 소개한다.

먼저 서울 한강 난지지구에 위치한 700요트클럽에서는 선상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송년회를 즐길 수 있다. 12인승 규모의 요트 안에는 빔 프로젝트와 음향시설 등 송년회에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다. 또 바비큐와 와인 등 음식 서비스도 제공되며 요트 레슨 후 요트를 직접 운행할 수도 있다.

관악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오렌지연필에서는 팀원들이 직접 공연과 전시 등을 준비해 작은 발표회를 열 수 있다. 스피커와 키보드, 빔 프로젝터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모임의 성격에 따라 조명이나 식사 등을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명 이상 식사하면 대관료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서울 인사동 오감만족 테마파크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암흑 체험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재미의 송년회를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초구 잠원동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음식과 함께 탱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경기도 청평의 아트리움은 그리스 풍으로 꾸며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기가 많다.

/황재용기자 hsoul38@

러버부츠 악취는 베이킹파우더로…

스웨이드 부츠는 전용 클리너로 세탁하도록

'부츠의 계절'이다. 겨울철 눈과 비에 젖은 부츠를 신발장 속에 그대로 방치하면 모양이 변형되고 악취를 풍기기 쉽다. 부츠를 오래 신으려면 가죽·스웨이드·고무 등 부츠 소재에 따른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

가죽 부츠는 가죽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츠를 신기 전 색상에 맞는 구두약이나 가죽 전용 크림으로 부츠를 닦으며 부츠에 막을 형성해 상처를 방지하고 가죽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마른 헝겊에 우유를 묻혀 닦아주는 것도 코팅 막을 형성하고 부츠의 광택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눈이 오는 날 부츠를 신었다면 외출 후 반드시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가죽의 통기성과 보온성을 유지해야 한다.

스웨이드 부츠에 물이 묻었을 때 그냥 문지르거나 비비면 오염 물질이 번지고 스웨이드 표면 조직이 상할 수 있다.

얼룩이 묻었을 때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젖은 부분을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얼룩이 심한 경우에는 물 세척을 하는 것이 좋다. 물 세척을 할 때는 털 브러시로 먼저 먼지를 제거하고 스웨이드 전용 클리너를 뿌려 씻은 뒤 그늘에 말린다.

고무 소재인 러버 부츠는 빙판길에도 비교적 안전해 전용 니트 양말과 함께 겨울철 방한 부츠로 자주 신는다. 하지만 통풍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관리 없이 신다 보면 부츠 속에서 악취가 나기 쉽다.

러버 부츠 속 악취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섞고 러버 부츠 안에 넣어 흔들어주고 10분 정도 지나 물로 헹궈 서늘한 곳에 말려주면 된다.

눈이 오는 날 러버 부츠를 신었다면 외출 후에는 반드시 물로 씻어 눈길에 뿌려진 염화칼슘을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염화칼슘이 고무와 반응해 부츠가 하얗게 변색할 수 있어서다. /박지원기자

유아용품, 알뜰구매 연말이 적기

물량 떨어내기 활용 도움…할인·사은품 증정

유아용품 업계가 연말을 맞아 할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체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큰 폭의 할인율을 내걸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는 자사 대표 브랜드부터 밀고 있는 신제품까지 동원해 올해 마지막 물량 떨어내기에 나섰다.

에이원은 창립 4주년을 맞아 1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베이비페어를 진행한다. 자사몰을 비롯해 신세계몰, 롯데닷컴, 롯데아이몰, GS샵, AK몰, CJ몰 등 국내 대표 온라인몰을 통해 자사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와이케이비앤씨는 57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내걸었다. 보령메디앙스가 운영하는 편집숍 비비하우스에서 퀴니 브랜드로 12월 한 달 간 단독 이벤트를 벌인다. 퀴니 무드 혹은 제프엑스트라 2.0을 구매하면 맥시코시 신생아용 카시트를 증정하고 퀴니 예츠를 구매할 경우 32만원 상당의 4계절 커버와 스페어시트를 추가 제공한다.

수유 전문 브랜드 유미는 세피앙몰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PPSU 젖병 1개 구매할 경우 젖꼭지 2개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연다. 또 PPSU 젖병 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5만원 상당의 단계별 젖꼭지를 추가 증정한다. 이 외에 쁘레베베는 이달 말까지 맨듀카의 포시즌 세트·웰론패딩워머 세트·2in1 세트 등을 최대 40% 할인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준비 없는 '실내 겨울 운동' 부상 조심

시작 전 땀날 정도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크로스핏이나 요가, 복싱 등의 인기가 높아졌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먼저 짧은 시간을 투자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인 크로스핏은 다이어트는 물론 전반적인 기초체력을 강화하기에 적당한 운동이다. 하지만 그만큼 부상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한 여성이 부상을 쉽게 당할 수 있으며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빠른 방향 전환을 요하는 동작이 많아 관절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복싱 역시 근육 강화와 지방 연소는 물론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력과 폐활량을 키우기에 좋다. 하지만 무릎 반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 운동량이 적다면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가해져 반월상연골판을 다칠 수 있다.

불균형적인 자세를 바로잡고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요가는 몸매를 잡아주는 운동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평소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디스크 탈출 위험이 있는 동작에 주의해야 한다. 몸의 굴곡이나 비틀림에 의해 디스크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허리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 질환이 있다면 재활치료에서 시작된 운동법인 필라테스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와 같은 운동은 어느 정도 기초체력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땀이 날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 관절과 근육을 풀어준 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제호 바른세상병원 원장은 "운동 전후는 물론 평소에도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으며 집이나 실내에서는 국민체조와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젊어지는 백내장, 예방이 최선

자외선 노출·전자기기 사용으로 30~40대 늘어나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백내장의 발생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30~40대 환자 등 '젊은 백내장'이 늘고 있다.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마치 창문에 서리가 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수정체 혼탁의 위치와 정도 등에 따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고 수정체 굴절력이 증가하면서 근거리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젊은 백내장은 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자외선 노출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량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외선은 안구 내 산화작용을 일으켜 수정체를 단단하게 굳게 하고 과도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눈의 활성산소 생성을 유발해 수정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백내장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구분된다. 약물치료의 경우 증세가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적은 경우에 실시하고 노안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수술적인 치료는 초음파를 통해 굳어진 수정체를 녹인 후 작은 절개창 사이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습관이다. 녹색 채소 등을 먹어 눈에 좋은 각종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특히 눈 속 활성산소를 억제해 백내장 예방과 망막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Lutein)을 많이 먹어야 한다. 또 자외선은 백내장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외부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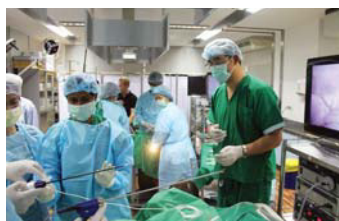
"연말, 건강한 음주 즐겨요" 한국야쿠르트가 연말을 맞아 쿠퍼스 프리미엄과 함께하는 '건강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선 경찰관 포순이 캐릭터가 길거리 음주자를 대상으로 평균대 똑바로 걷기, 음주 측정등 간단한 음주 테스트를 통해 쿠퍼스 프리미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자를 보내면 진짜 천사가 나타나는 '쿠퍼스 엔젤-SOS 프로젝트' 행사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오는 20일까지 강남·홍대·종로 등 서울 주요 번화가에서 주 3일간 진행된다. /한국야쿠르트 제공

이대여성암병원, 태국에 의술 전파

주웅·김윤환 교수 현지 병원 방문 전수

이대 여성암병원이 최근 태국 시리라즈병원의 초청을 받아 수술을 시연하는 등 최신 의료기술을 전수했다.

이 자리에는 주웅·김윤환 이대 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동남아 부인과 수술 워크숍'에서 거대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암에 대한 내시경 수술을 시연했다.

또 시연 중에는 음성 화상장비를 통해 워크숍 참가자들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응답하기도 했으며 동물 수술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내시경 수술 기법을 직접 전수했다.

주 교수는 "이번 초청으로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국내 환자들은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 어디에서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연말만 되면 피곤해 지는 '귀와 목'

잦은 회식과 가중된 업무로 악영향

연말이 되면서 회식이 많아져 음주가 늘어나면 귀와 성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로 야근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피로감은 가중된다.

먼저 귀에 피로도가 높아지면 이명이 나타날 수 있다. 이명은 귀 속이나 머리에서 바람소리나 기계음 등의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하며 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하다. 또 카페인 섭취나 흡연 등으로 혈관이 수축되면 수많은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귀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이명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아울러 연말에는 고도의 난청과 이명이 생기는 돌발성 난청 환자가 늘어난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주요 원인으로 5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청년층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돌발성 난청은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만 정상 청력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연말 회식의 필수 코스인 노래방에서는 성대결절이나 폴립을 조심해야 한다. 알코올로 성대 점막이 건조해지고 부은 상태에서 자신의 목소리 톤보다 높은 노래를 소리 지르며 부를 경우 성대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본인의 키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앉아서 노래를 부를 경우 호흡이 짧아져 성대에 쉽게 무리가 가고 마이크를 너무 높이 들면 턱이 들리면서 성대에 악영향을 미친다. /황재용기자

"오~래 연기할 거예요"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남지현

"강서울과 비슷한 건 강직함"
아역 출신 배우 한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죠"
"소속사 선택? 활동의 방향성이 중요"

지난 2009년에 방송된 드라마 '선덕여왕'은 배우 남지현(19)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이다. 당시 남지현은 어린 덕만 공주를 연기해 차세대 연기파 배우라는 호평을 받았다.

남지현은 최근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로 연기 인생 10년 만에 첫 성인 연기를 하고 있다. 그가 맡은 강서울은 "커서 결혼하자"는 어릴 적 약속만 믿고 서울에 온 순수한 시골 처녀다. 차순봉(유동근)의 셋째 차달봉(박형식), 아이돌 출신 요식업 대표 윤은호(서강준)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드라마 속 강서울의 설정은 억지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남지현은 "작품에서 가장 판타지적인 캐릭터"라며 "나도 처음에는 강서울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강서울의 성장 배경을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사는 강서울은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종류가 '공자' '맹자' 등이에요. 믿음이 강하고 순수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 꼭 실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순수함에 주안점을 뒀어요. 작가도 20대인 강서울이 순수하면 좋겠다고 조언했죠. 출연도 작가님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제가 강서울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해요. 무엇이든지 한번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직한 점이 닮은 것 같아요. 작품도 좋았고 KBS 주말극은 워낙 유명하니까 좋은 기회여서 참여하게 됐죠."

남지현은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대선배들과 함께 호흡한다.

"가장 막내여서 긴장도 됐고 부담도 있었어요. 그런데 촬영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정말 좋아서 부담을 많이 덜어냈어요. 진짜 할아버지, 아빠 같아요. 선배들의 연기를 보고 대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사 전달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한 부분만 조언해주세요. 고쳐나가며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가 남지현에게는 본격적인 첫 성인 연기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올해 초 방영된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였다. 극중 윤수완의 학창 시절을 연기한 그는 강하늘과의 로맨스로 존재감을 보였다. 시력을 잃은 이의 쓸쓸한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

"'엔젤아이즈'는 캐릭터 성격상 감정 연기가 두드러졌어요. 흔히 아역 연기와 성인 연기를 나누는데 제 입장에서는 역할에 맞게 연기할 뿐 '아역이니까 이래야 해'라는 건 없어요.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죠. 이번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많은 가족극이라서 미니시리즈만큼 감정을 깊이 있게 보여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경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요."

예닐곱 살에 MBC '전파 견문록'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발을 담은 남지현은 MBC 드라마 '사랑한다 말해줘'(2004)로 배우로 데뷔한 뒤 지금까지 쉼 없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역 출신 배우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그는 "아역 이미지가 강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역 출신이라 좋은 건 신인보다 현장도 익숙하고 제작진과도 친숙하다는 것, 그리고 대중의 눈에도 제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려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릴 때의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진짜 성인이 돼도 어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타이밍에 맞게 좋은 작품을 하게 됐죠. '엔젤아이즈'를 시작으로 소녀와 여인 사이에 있는 캐릭터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 방송가와 영화계에서는 20대 여배우 기근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남지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한번쯤은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편안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처음으로 긴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아역일 때는 많아 봤자 8회 정도 출연이었거든요. 걱정이 됐지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면서 급하지 않게 해나가기로 했어요. 20대 초반이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줄 기회가 많잖아요. 천천히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소속사가 없는데 이번 드라마를 끝내고 기획사에 들어갈 거예요. 현재 몇 군데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회사랑 처음 일하고 회사도 소속사가 없던 친구와 처음 일하는 거잖아요. 활동의 방향성이 소속사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할 거예요. 오래 연기할 거니까 저와 비전이 비슷한 소속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오빠들이 돌아왔다" 1세대 아이돌 열풍

예능에서 만나는 핑클·S.E.S·H.O.T·젝스키스 추억의 히트곡·노련한 방송 매너로 '웃음 공략'

옥주현
그룹 S

핑클, S.E.S, H.O.T, 젝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의 방송·가요계 활약이 눈부시다. 지난해 H.O.T 문희준과 토니, god 데니, 젝스키스 은지원, NRG 천명훈이 뭉친 프로젝트 그룹 '핫젝갓알지'에서 시작된 1세대 아이돌의 귀환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오빠들의 컴백'은 올 여름 god의 완전체 컴백으로 정점을 찍었다. 약 9년 만에 재결합한 god는 콘서트로 팬들을 만났다. 그룹 차원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는 않았다. 다만 멤버 박준형이 오랜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1990년대 개그 구사로 '냉동인간'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MBC '무한도전'은 특별기획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라 불리던 1990년대 가수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지난달 8일 방송된 '토토가' 첫 번째 이야기에선 1990년대 가수 섭외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는 쿨의 이재훈, 소찬휘, 김현정, 핑클 옥주현, S.E.S 바다, 젝스키스 장수원·김재덕 등이 등장했다. '토토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노래방 역량평가에서 95점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뮤지컬 배우로 맹활약 중인 옥주현은 여유 넘치는 태도로 핑클의 히트곡 '루비'를 불렀지만 91점에 그쳤다. 옥주현은 제작진의 "바다는 100점을 받았다"는 전언에 투지를 불태웠다. 활동 당시 라이벌 걸그룹으로 경쟁을 펼치던 S.E.S와 핑클의 대결이 '토토가'에서 재연된 것이다. 옥주현은 결국 95점을 기록해 '토토가' 출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이워크로 활동 중인 장수원과 김재덕은 젝스키스로 출연했다.

장수원과 김재덕은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별다른 설명 없이 다짜고짜 노래를 부르라는 노홍철과 하하의 요구에 군말없이 젝스키스의 히트곡 '폼생폼사'를 불렀다. 1997년에 발표된 노래였지만 두 사람은 세월을 잊은 듯 완벽한 안무를 보여줬다. 하지만 보컬 담당 3인이 나눠 불렀던 노래를 장수원이 혼자 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92점이라는 아쉬운 점수를 기록했다. 데뷔곡 '학원별곡'에 장수원과 김재덕은 난색을 표했고 전주 부분에서 끊긴 노래가 100점을 기록하는 상황이 발생해 '큰 웃음'이 터졌다.

또 장수원은 이날 스스로를 "젝스키스의 유일한 배우"라고 소개하며 '로봇 연기'를 보여줬다. 장수원은 앞서 KBS2 '사랑과 전쟁' 아이돌 특집에서 어색한 연기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온라인에서는 그의 연기를 조롱하는 각종 유머 글이 떠돌기도 했다. 하지만 장수원은 대중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로봇 연기'를 자신의 장기로 삼는 여유를 보였다. 덕분에 '토토가'에서 장수원은 시청자에게 가장 큰 웃음을 안긴 주인공이 됐다.

이날 방송에서 H.O.T의 강타는 그룹 재결합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그는 신화 신혜성, 이지훈과 함께했던 프로젝트 그룹 S 활동을 재개했다. 강타와 이지훈은 13일 오후 KBS2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다. 이날 두 사람은 정훈희의 대표곡 '꽃밭에서' 무대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해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1세대 아이돌은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련미와 추억의 히트곡을 무기로 시청자들을 제대로 공략 중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김지원, 이동욱·유연석과 한솥밥

킹콩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새로운 도약'

배우 김지원(사진)이 킹콩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일 킹콩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초 방송된 tvN 드라마 '갑동이'에서 마지울 역으로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준 김지원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김지원은 지난 2010년 CF로 얼굴을 알렸으며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 영화 '로맨틱 헤븐'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유라헬 역을 맡아 도도한 매력으로 사랑받았다.

김지원은 새 소속사에 둥지를 튼 만큼 차세대 원톱 여배우로 2015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다. 이동욱·유연석·이광수·조윤희 등 스타들이 소속된 킹콩엔터테인먼트 역시 김지원의 합류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킹콩엔터테인먼트 이진성 대표는 "김지원은 배우로서 갖춰야 할 탄탄한 연기력과 신비로운 마스크, 싱그러운 이미지 등 팔색조 매력을 갖고 있다"며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만큼 김지원의 새 도약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원도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곳에서 활동을 시작한 만큼 저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팬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낸시랭, 샤이니 키 모델로 새 작품

연작물 '터부 요기니'… 키가 먼저 작업 요청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를 모델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낸시랭은 지난 10일 미술전시업체 헬레나앤코가 주최한 마이페스트 개관전 '특별한 인연'에서 자신의 연작인 '터부 요기니'의 새 작품을 공개했다.

이번 작품에서 낸시랭은 샤이니 키의 얼굴을 소재로 삼았다. '터부 요기니'는 선악이 공존하며 점차 기계화 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기계가 된 몸 안에서 계속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전시회에 참석한 JK, 키, 낸시랭, 김정목, 민송아. /앤스타·헬레나앤코

낸시랭은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연작물을 보다 다양하게 연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키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작품을 지금껏 매우 좋아해 왔다"며 "낸시랭에게 내 얼굴로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접 작품을 건네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낸시랭은 전시회 오프닝에서 키에게 작품을 전달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지민기자

이예준 캐롤 앨범 인기몰이

실력파 프로듀서 스노우핑거 참여 '호평'

엠넷 '보이스 오브 코리아2' 출신 가수 이예준(사진)이 발표한 미니 캐롤 앨범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탈라인 데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5일 발매된 이예준의 미니 캐롤 앨범은 성시경, 케이윌 등 실력파 가수들의 겨울 노래들과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개별 출시된 이예준의 미니 캐롤 앨범은 멜론, 엠넷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뿐만 아니라 아이튠즈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함께 공개된 앨범 제작영상도 3일 만에 조회수 3만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같은 인기는 이예준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세션들이 이번 앨범에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BS2 '불후의 명곡'에서 비스트 양요섭의 편곡자로 활동한 실력파 프로듀서 스노우핑거가 앨범 프로듀싱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이예준은 이번 캐롤 앨범의 수익금 중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미생' 인기 원동력은 '각색'

원작에 없는 인물·에피소드·명대사 삽입 '완성도↑'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 놓은 tvN 금토드라마 '미생'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영된 18화는 평균시청률 8.0%, 최고시청률 9.5%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지상파를 포함하면 남자 30~40대와 여자 20~30대에서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야말로 '직장인 신드롬'이다.

'미생'은 탄탄한 스토리와 섬세한 연출, 출연진의 명품 연기까지 3박자를 고루 갖췄다는 평가다. 등장인물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구축해 흥미로운 전개를 이끌며 몰입감을 높였다는 점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원작 웹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물들과 그들이 펼치는 에피소드, 명대사 등 각색의 힘이 인기의 비결이라는 분석이다. 주연 배우뿐만이 아니라 조연과 단역까지 모두가 입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등장해 극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드라마 '미생'은 신입사원 장그래(임시완)의 동기 3인방인 안영이(강소라)·장백기(강하늘)·한석율(변요한) 등의 비중이 커졌다. 여기에 안영이와 묘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며 공공의 적에서 측은한 상사로 변한 하대리(전석호), 장백기와 '남남(男男)케미'를 선보이며 직장 내 선호 상사 1위를 자치한 강대리(오민석), 반짝 출연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재무부장(황석정)과 박대리(최귀화) 등은 원작보다 비중 있게 다뤄져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회차가 지날수록 김동식 대리(김대명)는 극의 중심을 잡는 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한석율과 앙숙 관계인 성대리(태인호)는 극 막판 '키 맨'이 돼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새롭게 삽입된 에피소드와 명대사들도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다. 영업3팀 오상식 차장(이성민)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래처 사장에 2차 접대를 하지 않고 사장의 사모를 호텔방으로 부르는 에피소드, 장그래의 어머니가 손수 넥타이를 매주며 "어른 흉내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충고하는 장면은 모두 원작에 없는 장면이다. 최근 방송에서 안영이가 장백기에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면서 둘 사이에서 애정전선이 싹트게 된 것도 원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제작진 측은 "극의 갈등 구조와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데 처음부터 힘을 써왔다"며 "각색을 맡은 정윤정 작가는 원작의 명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드라마의 묘미를 더 살리겠다는 초기의 포부대로 에피소드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님아, 그 강을…', '인터스텔라' 뛰어넘다

77만 돌파, 한국 다큐 역대 흥행 2위

노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박스오피스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지난 11일 목요일부터 '인터스텔라'와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등 할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정상을 지키고 있다.

개봉 3주차 토요일인 13일 하루 동안에는 24만7652명을 모았다. 전일 대비 관객수 증가율은 무려 130%다. 누적 관객수는 77만6418명을 넘어섰다. '워낭소리'(296만)에 이어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역대 흥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박스오피스 정상 등극으로 한국영화는 '나를 찾아줘'와 '인터스텔라'에 내주었던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7주 만에 되찾게 됐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할리우드 대작들에 맞서 세운 기록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영화는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는 89세 할머니와 98세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노부부의 애틋한 로맨스, 그리고 잔잔한 슬픔과 감동으로 겨울 극장가를 찾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개봉 6주차에 접어든 '인터스텔라'는 누적 관객수 954만5068명을 기록하며 1000만 돌파를 향해 가고 있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은 누적 관객수 124만6576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3위에 머물렀다.

/장병호기자 solanin@

유희열 묻고 신민아가 답…

'스케치북' 크리스마스 특집… 19일 밤 방송

배우 신민아(사진)가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크리스마스 특집에 출연한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크리스마스 특집은 그동안 가수 성시경과 김조한이 아바타와 슈렉으로 분장을 하고 공연을 펼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신민아는 최근 진행된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를 마쳤다. 이번 녹화에는 신민아 외에도 성시경·플라이 투 더 스카이·거미·나비가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신민아는 과거 유희열의 '소품집' 앨범에 참여한 적이 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강승원 음악 감독과도 한 차례 작업한 적이 있다. 이번 특집 방송은 신민아의 참여로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특집이 됐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신민아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녹화를 마쳤다. 제작진과의 미팅과 음악 연습에도 최선을 다한 그는 유희열과 토크는 물론 콩트까지 도전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19금 케미'가 관객의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신민아는 "영화나 드라마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 동안 사랑해주신 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민아가 출연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크리스마스 특집은 오는 19일 밤 12시15분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버드맨' 골든글로브 최다 후보

작품상·주연상 등 7개 부문 노미네이트

마이클 키튼 주연의 영화 '버드맨'이 제72회 골든글로브 최다인 7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버드맨'은 지난 12일(한국시간) 발표된 제72회 골든글로브 후보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 남우주연상, 극영화 공통 부문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됐다.

'버드맨'은 앞서 제7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개막작과 제52회 뉴욕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각종 비평가 협회에서 수상한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선정하는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도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최고 연기 앙상블상 등 총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버드맨'은 슈퍼히어로 버드맨으로 스타가 된 리건 톰슨(마이클 키튼)이 잊혀진 스타로 전락한 뒤 배우로 재평가받기 위해 브로드웨이 무대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다. '21그램' '바벨' 등을 연출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가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린다. 제72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에 열린다.

/장병호기자

FTA 발효로 주목받는 호주 와인

호주 와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2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15%가 부과됐던 호주 와인 관세도 이날로 철폐됐다.

호주는 세계 4위의 와인 수출국이다. 품질도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프랑스 미국 칠레 등 타국 와인에 비해 열세였다. 이유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칠레에 비해 가격적인 메리트가 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판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와인 수입상과 백화점 등에서 호주 와인 할인 판매가 시작됐다. 이제부터 수입되는 와인은 출고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호주 와인산업의 역사는 신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짧다. 포도나무의 재배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18세기 말부터 시작됐으나 품질 좋은 와인을 만들지 못했다. 초기에는 주정강화 와인을 주로 생산했으나 양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반 와인으로 전환됐다.

호주 와인산지는 시드니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 멜버른 아들레이드에 이르는 해안 접경 지대의 여러 밸리와 경사지에 걸쳐 있다. 해안가의 와이너리는 해양성 기후가 많이 반영되며 주로 중·고급 와인을 생산한다. 호주의 대중적인 와인은 내륙의 사막기후대에서 대량 생산한다. 인공으로 물을 공급하는 관개가 필수지만 더운 기후로 인해 포도는 매우 건강하고 잘 익는다.

호주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은 쉬라즈(Shiraz)다. 프랑스 론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시라(Syrah)가 호주로 건너가 바뀐 이름이다. 쉬라즈 와인은 높은 알코올 도수에 묵직한 바디, 후추(스파이시)향이 특징이다. 일부 와인은 거의 소주에 버금가는 도수까지 올라간다. 현재는 쉬라즈 외에도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도 많이 재배하며 화이트와인으로는 샤르도네가 주로 생산되며 세미용 품종이 소량 꾸준히 재배되고 있다.

호주산도 좋은 와인은 많다. 옐로우 테일·제이콥스 크릭·펜폴즈·투핸즈 등이 잘 알려진 메이커이며 펜폴즈의 그랑지 브랜드의 경우 가격도 비싸고 그 만큼 최고 품질의 와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mcho@metroseoul.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9
4			6					
				2		4	8	5
							2	4
		6		4		7		
2	9							
6	5	2		7				
					1			8
3					6	9		

	7					2		
								7
2	5	6			1		8	
	1	4	9				2	
		9	5		4	8		
	3				8	7	9	
	8		4			3	5	1
6								
		5					7	

스도쿠 정답

1	7	5	3	8	4	2	6	9
4	2	8	6	9	5	3	1	7
9	6	3	1	2	7	4	8	5
5	1	7	9	6	3	8	2	4
8	3	6	5	4	2	7	9	1
2	9	4	7	1	8	5	3	6
6	5	2	8	7	9	1	4	3
7	4	9	2	3	1	6	5	8
3	8	1	4	5	6	9	7	2

4	7	1	8	9	6	2	3	5
3	9	8	2	4	5	1	6	7
2	5	6	7	3	1	4	8	9
8	1	4	9	7	3	5	2	6
7	6	9	5	2	4	8	1	3
5	3	2	6	1	8	7	9	4
9	8	7	4	6	2	3	5	1
6	2	3	1	5	7	9	4	8
1	4	5	3	8	9	6	7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파트로 이사 남편은 주택을 고집
남편뜻 따르되 새집선택 피하도록

Q rlagodtns7 여자 62년 3월 11일 음력 01시 10분
남자 58년 11월 18일 음력

현재 10년째 빌라에 거주 중 입니다. 이사를 하고 싶어 주택과 아파트 둘 중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남편은 주택을 원하고 저는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해야할까요? 지금 부산 사상에 거주 중인데 만약 이동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주택, 아파트 중 어디로 가야 할까 집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 부부가 되는 것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면 현재의 생활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주구조로는 '전답에 비가 내린 격'으로 식록이 풍족하고 일을 시작하면 소기의 성과를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정이 병이되는 것과 같이 배우자와 의기투합이 잘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특유의 고집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적으로 매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려는 자세를 보이는데 칠살의 제어로 시작을 망설이기만 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기운이 부족하지만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튼튼해야 하며 대들보 역할은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외세를 막을 수 있고 가정이 안정하게 됩니다.

사주를 보면 남편은 오행상으로 월의 갑목, 좌하(앉은자리)의 진토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주택을 원하는 것이고 귀하는 계수 일간(태어난 생일)이 토를 떠나려고 하니 APT를 원하게 되어 서로 상충되어 있고 대운에서 진술충으로 이사를 갈려고 마음이 동하는 것인데 귀하의 주장을 강력히 펼치기보다는 남편이 원하는데로 주택 쪽으로 선택토록 하시면 어떨까합니다. 귀하의 사주를 보더라도 3월생으로 주거지는 새 아파트 보다는 주택이 평안합니다. 여하튼 그 주거지가 어느 곳으로 가든 너무 새집으로 무리해서 가지는 마세요. 누구나 다 새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꿈꾸지만 새집으로 무리해서 간다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이왕이면 날일변이 들어가는 동네로 가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15일 (음 10월 2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작은 경사에 한턱 쏜다. **60년생** 벗의 도움요청 외면 말라. **72년생** 너무 튀면 왕따 자초한다. **84년생** 빛나는 결과로 말할 수 있어 뿌듯~.

49년생 느리게 가는 법을 받아들여라. **61년생** 고정관념 깨면 새 길 열린다. **73년생** 본분 다한 다음 권리 요구하라. **85년생** 꼬인 일은 풀릴 기미 보인다.

50년생 벗과 한잔에 고독은 사라진다. **62년생** 가족과 함께 하도록 노력할 것. **74년생** 상사에게 원하던 대답 듣는다. **86년생** 부모 은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법~.

51년생 시작한 일은 마무리 잘 하라. **63년생** 한발 물러서면 만사 편안하다. **75년생** 오늘보단 내일 생각할 것. **87년생** 목표는 가시권에 들어선다.

52년생 다 가지려다 다 잃는다. **64년생** 엉터리 정보에 속지 않도록 조심~. **76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88년생** 지켜보는 사람 있으니 매사 최선 다하라.

53년생 힘들어도 진실 말하라. **65년생** 무슨 일이든 때가 있는 법이다. **77년생** 변수가 많으니 끝까지 가보자. **89년생** 따지기 좋아하다가 되레 당한다.

42년생 듣기 좋은 거짓말이 일 망친다. **54년생** 숨겨진 성과 잘 파악할 것. **66년생** 묵묵히 본업에 충실하면 기회는 온다. **78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야호~.

43년생 가장의 무게감 느낀 하루~. **55년생** 어깨에 힘들어가는 일 생긴다. **67년생** 북쪽이 행운의 방향임을 참고 하라. **79년생** 오늘의 땀은 성공 밑거름이 된다.

44년생 실언하면 자녀에 휘둘린다. **56년생** 가족과 긴밀히 소통할 것. **68년생** 너무 신중하면 찾아온 기회도 놓친다. **80년생** 월권행위 않도록 조심~.

45년생 자손에 큰 길을 열어주라. **57년생** 궤변 늘어놓는 이웃이 얄밉다. **69년생** 배우자를 아낌없이 사랑하라. **81년생** 꼬였던 일은 하나씩 풀린다.

46년생 유망한 투자처를 발견한다. **58년생** 차별화된 이미지로 승부 걸어라. **70년생**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복이 굴러온다. **82년생** 매사 신중에 신중할 것.

47년생 아랫사람 적극 칭찬하라. **59년생** 서쪽에서 희소식 날아온다. **71년생** 예감이 안 좋을 땐 움직이는 일 피하라. **83년생** 원하던 정보는 얻는다.

김효주 2015시즌 시작도 기분 좋게

현대차 中 오픈 우승… 올해만 7번 우승 '쾌거'

김효주(19·롯데)가 2015년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대회를 우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다.

14일 중국 광둥성 선전 미션힐스 골프장 월드컵코스(파72·6387야드)에서 열린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총상금 55만 달러) 최종 3라운드에서 김효주는 버디 8개와 보기 1개로 7언더파 61타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로 김효주는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를 적어냈다. 한때 공동 선두에 올랐던 전인지(20·하이트진로)를 2타 차로 따돌리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KLPGA 투어 4관왕에 오른 2014년 시즌의 기세를 2015년 시즌으로 이어나갈 발판을 다졌다.

김효주는 올 한 해 총 7번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2014년 시즌 KLPGA 투어 5승을 거둔 그는 지난 9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이번 대회까지 제패했다.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2015년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낸 김효주는 내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선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KLPGA 투어 기반을 미리 다져놓겠다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해냈다.

이날 경기는 바람 없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펼쳐졌다. 김자영(23·LG), 김지현(23·하이마트)과 함께 챔피언조에 속한 김효주는 2번홀(파5)부터 6번홀(파5)까지 5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초반부터 앞서나갔다.

14일 중국 광둥성 선전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효주가 우승트로피에 입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전반 9번홀까지 버디 6개를 적어내고 단독 선두를 달린 김효주는 13번홀(파3)에서 티샷이 벙커에 빠지는 바람에 보기를 기록했다. 그러나 16번홀(파5)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전인지의 추격도 매서웠다. 전인지는 8번홀(파3)부터 12번홀(파4)까지 5홀 연속 버디를 낚으며 김효주를 쫓아왔다. 김효주가 13번홀에서 보기를 적어낸 사이 전인지는 14번홀(파4)에서 추가 버디를 잡으며 공동 1위로 도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16번홀(파5)에서 공을 벙커에 빠트리는 실수로 추가 버디를 잡지 못했다. 이어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역전에 실패했다. 전인지는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했다.

한편 전날 2라운드를 공동 8위로 마친 장하나는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해 중국의 유망주 린 시위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슈틸리케號, 아시안컵 본격 준비

15일부터 제주 전지훈련… 깜짝 발탁 '관심'

슈틸리케호(號)가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2015 호주 아시안컵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울리 슈틸리케(사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5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아시안컵에 대비한 전지훈련을 치른다.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K리그 소속 선수들을 비롯해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슈틸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파와 중동파 선수들이 시즌이 한창인 관계로 참가하지 않는다.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에 대비해 그동안 4차례 평가전을 치르면서 '옥석 가리기'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슈틸리케호는 대강의 골격을 드러냈다. 대부분 포지션의 주전 구상은 이미 마친 것으로 보이나 '빈 자리'는 아직 남아 있다.

지난달 요르단, 이란과의 중동 원정 평가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깜짝 발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전지훈련 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는 "(최종 명단에서) 깜짝 발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부상을 입은 '원톱' 자원인 이동국(전북 현대)과 김신욱(울산 현대)의 아시안컵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 이번에 공격 자원으로 선발된 이종호(전남 드래곤즈), 강수일(포항 스틸러스), 이정협(상주 상무),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 황의조(FC성남)에게는 이번 전지훈련이 호주행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이면서도 절호의 기회다.

이번 전지훈련은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아시안컵 대비는 물론 내년 7월 중국에서 열리는 2015 동아시안컵 대비의 의미도 있다. 동아시안컵에는 해외파 선수들을 차출할 수 없다. K리그 선수들에게는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을 준비해야 하는 슈틸리케 감독에게서 '즉시 전력감'으로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전지훈련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자체 연습 경기가 열린다. 훈련이 끝나면 슈틸리케 감독은 22일께 서울에서 아시안컵에 나설 23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27일 호주 시드니로 출국해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오만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릴 캔버라로 이동한다.

/장병호기자

이상화 연이은 '금빛 레이스'

빙상월드컵 女 500m 4회 연속 금메달

'빙속 여제' 이상화(서울시청·사진)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여자 500m 레이스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상화는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열린 2014-2015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1차 레이스에서 37초69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고다이라 나오(일본)가 37초70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고, 유디스 헤세(독일)가 37초8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상화는 500m 금메달 행진을 4경기로 늘렸다. 그는 앞서 서울에서 열린 2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연속 금메달 행진을 10경기에서 멈췄다. 그러나 이 대회 2차 레이스부터 다시 4경기째 정상을 놓치지 않았다.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이날까지 치른 7차례 여자 500m 레이스에서 이상화는 6차례 우승했고 1차례 준우승했다. 아울러 월드컵 여자 500m 레이스의 연속 메달 행진도 28경기째 이어갔다.

올 시즌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박승희(화성시청)는 38초75의 기록으로 16위에 올랐다. 3차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39초02)을 작성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이를 단축해 처음으로 38초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이승훈(대한항공)이 이끄는 남자 팀추월 대표팀도 3분44초57의 빼어난 기록으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이승훈은 14일(한국시간)에 열린 남자 50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는 6분32초50의 기록으로 13위에 올랐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프로농구 전적 14일

팀	1Q	2Q	3Q	4Q	합계
SK	22	23	15	25	**85**
LG	16	19	26	15	**76**
KT	23	13	18	24	**78**
KCC	9	24	22	20	**75**
삼성	20	19	14	21	**74**
동부	26	21	17	19	**83**
국민은행	19	17	22	17	**75**
KDB생명	18	10	12	13	**53**

프로배구 전적 14일

팀	세트	세트	팀
LIG손해보험	1	3	대한항공

아직도 모르세요?

지난 6년간 4백만가구가
3조 2천억원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신청대상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신청자격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 재산, 주택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

※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5. 5. 1. ~ 6. 1.
신청방법 : ARS, 모바일웹, 인터넷신청 등

지급시기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 지급예정

※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번없이 126번 [1번 누른 뒤 4번]
검색창 근로장려금